Daishin 증권

2026년 03월 16일 월요일

Morning Meeting Brief

Daishin's VIew

[Daishin's View] 2026년 3월 3주차

- **금리:** 기대 인플레가 반영되는 채권, 안전자산 선호 경로 **환율:** 지정학 리스크에 단기 변동성 확대, 그러나 추후 빠르게 안정 예상
- **국내증시:** 중동 리스크로 KOSPI 변동성 ↑ 펀더멘털은 견고. **글로벌 증시:** Mr. 선진국 마켓. 3월 오른다. 투자환경 Risk-on 국면
- **원자재:** 아시아 사재기로 변동성↑ SPR 등 감안시 비관론 과도 **부동산:** 강한 '구두개입'에 약보합 고려. 상업용 Quality 자산 선호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Strategy

[퀀틴전시 플랜] 지정학 리스크 지속에도 둔화되는 증시 민감도

-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유가·달러-원 환율 상승, 글로벌 증시 하락
- 증시 민감도는 점차 둔화. 코스닥의 아웃퍼폼 뚜렷
- 특징업종: 방산, 정유/화학, 게임 등

정해창. haechang.chung@daishin.com

Commodity

호르무즈발 에너지 대란, 원자재 2차 상승 유발 요인

- 불과 2주 사이 전 세계 공급의 6% 사라진 원유 수출, LNG는 20% 증발
- 문제는 에너지 가격 상승이 원자재 전반 2차 상승 유발할 수 있다는 점
- 전력→금속, 비료→곡물→사료→돈육, 가스 리프팅→원유 등 비용↑ 유의

최진영. jinyoing.choi@daishin.com

산업 및 종목 분석

[Issue&News] 삼성전자: 지금이라도 사야 하는 이유

- 2026년 영업이익 전망치를 기존 201조원에서 242조원으로 상향.
- 강한 이익 성장 속, 재무 체력 강화 전망. 초과성장의 동력이 될 것.
- 목표주가 270,000원과 매수의견 유지. 적극적 매수 전략 유효.

류형근, hyungkeun.ryu@daishin.com

[Issue&News] SK 하이닉스: 현저한 저평가

- 2026년 영업이익 전망치를 기존 174조원에서 204조원으로 상향.
- 현저한 저평가 구간에 위치. 반등의 매개체는 충분하다는 판단.
- 목표주가와 매수의견 유지. 적극적 매수 접근이 필요한 시점.

류형근, hyungkeun.ryu@daishin.com

[Issue Comment] 자동차/부품: 자동차 커버리지 정기주총 체크 포인트

- 자동차 업종 3월 정기 주주총회 안건 분석: 상법 개정으로 정관변경 ↑
- 에스엘은 CB/BW 발행한도 확대 안건 상정(기존 한도 500 => 5,000억원)
- 로봇 수주 => 자금 조달/Capex 집행 동반 예상. 수주 모멘텀 지속 주목

김귀연, gwiyeon.kim@daishin.com

[Issue Comment] 현대차: 팰리세이드 리콜 관련 업데이트

- 현대차, 팰리세이드 전동 시트 결함 이슈로 생산 중단/리콜 발표(3/14)
- 기능 개선/안정성 강화 임시 소프트웨어 개발과 3월말 OTA 준비중
- OTA 통해 리콜 마무리된다면, 관련한 펀더멘털 영향 크지 않을 것

김귀연, gwiyeon.kim@daishin.com

Daishin's View

Daishin Research Center

2026년 3월 3주차

[금리] 국고 3년 2.80~3.45%

기대 인플레에 따라 다르게 반영되는 채권에 대한 안전자산 선호 경로

이란 전쟁 이후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기인한 채권에 대한 안전자산 선호 경로가 과거와 달리 제대로 반영되지 못함. 팬데믹 이후 크게 높아진 인플레이션 기대 부담을 금리가 반영. 높은 인플레이션 기대와 함께 최근 금리 형성의 핵심 내러티브가 수급 이슈로 이동했다는 점도 안전자산 선호 경로를 약화하는 요인으로 작용

[환율] 달러원 환율 1,380~1,520원

지정학 리스크에 단기 변동성 확대, 그러나 사태 일단락 후 빠르게 안정 예상

미-이란 전쟁으로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달러 단기 강세 전환 및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 높은 아시아 국가들의 통화 절하 압력 심화. 그러나 전쟁 장기화 되지 않는다면 매크로 환경에 미칠 영향은 제한. 연준 연내 인하 가능성도 유지될 것으로 판단. 유가가 안정되는 대로 달러-원은 빠르게 1.400원대 중반 복귀 예상

[국내 증시] KOSPI 5,000~7,500p

중동 리스크로 KOSPI 변동성 ↑ 펀더멘털은 견고, 공포심리, 매도 Climax 정점 통과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로 인해 KOSPI 5,000선 초반까지 레벨다운. KOSPI 5,000선은 선행 PER 7.96배, Deep Value 구간. 지정학적 리스크 쇼크 선반영. 대화/협상 테이블이 마련될 때까지 분쟁 이슈에 따른 급등락 감안. 장기화(3개월 이상) 만 아니라면 정책/실적 동력 재확인하며 분위기 반전, 추세 반전 모색할 것

[글로벌 증시] S&P500 6,400 ~ 7,700p

Mr.Market은 오른다. 3월 투자환경, Risk-On 국면. 2월 변수의 긍정 파급효과 지속

3월 증시, 계절적 상승 구간(평균 1.7%). 2월 변수(물가, 관세, 실적)의 긍정적 파급효과 지속. 특히 엔비디아(FY 4Q26) 실적, AI 디스럽션 우려 낮추는 단초 역할. AI 고평가 우려는 기우. 트럼프 관세, 현 글로벌 유동성 장세의 바탕(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한 주요국 정책대응 산물). 美 2월 고용 등 매크로 변수, 연준 금리 인하 및 할인율 축소 기대 높일 것. 비중확대

[원자재] WTI 75~95$/bbl.

아시아 사재기로 가격 변동성↑ 다만, 우회 수출+역대급 SPR 감안시 비관론 과도

호르무즈 해협 불가항력 사태로 원유 수출 차질 규모만 530만b/d, 저장 능력 부족한 산유국 중심으로 감산 가속화. 중동산 원유 취약한 아시아 국가들 사재기로 가격 변동성↑. 그러나 1)실제 수출 차질 규모는 일부 우회 수출+이란의 정상 수출로 예상보다↓ 2)4억배럴 SPR 방출도 Key. 3)전쟁 목적이 영토가 아닌 우라늄 비축분 확보란 점에서 장기전 가능성↓

[부동산] 주택 : [조건부] 보합, 상업 : 상승.

주택시장에 강한 '구두개입 ', 약보합까지 고려. 상업용 Quality 자산 선호도 지속

주택 : '다주택자 엄포 ' 는 거들 뿐 핵심은 1주택자 증세 수준과 금리로 판단. 1주택자의 과세 수준에 따라 5월 이후에도 물량 증가 가능성 有, 전세가율 높은 지역은 수요 드리븐 상승 기대. 상업 :25년 여름 기대했던 3% 중반 금리 대신 선순위 하단이 4% 높아진 상황. 유동성 충분한 상황에서 수급은 대형/신축/주요권역으로 집중될 가능성 높은 상황

Strategy

지정학 리스크 지속에도 둔화되는 증시 민감도

Strategist Jr. 정해창
haechang.chung@daishin.com

Strategist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유가·달러-원 환율 상승, 글로벌 증시 하락
- 증시 민감도는 점차 둔화. 코스닥의 아웃퍼폼 뚜렷
- 특징업종: 방산, 정유/화학, 게임 등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유가·달러-원 환율 상승, 글로벌 증시 하락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14일째 지속되는 가운데 이란의 새 최고지도자로 선출된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호르무즈 해협 폐쇄를 계속 활용할 것이라는 강경발언을 이어가면서 강대강 대치 국면이 지속

미국 에너지부 장관도 미군의 자산은 파괴하는 데 집중되어 있으며, 현재로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 호위가 쉽지 않다고 설명

WTI 유가는 90달러 중반대에 머무르고 있으며, 브렌트유 가격은 100달러를 상회

달러 인덱스도 100선에 근접하면서 달러-원 환율은 1,490원 선을 돌파

증시 민감도는 점차 둔화. 코스닥의 아웃퍼폼 뚜렷

부정적인 이벤트가 이어지고 있으나 지정학적 이슈로 촉발되는 시장 변동성은 점차 둔화되는 모습

전날 미국 증시는 1.5% 전후로 하락했으나 선물시장에서 강보합권 흐름

코스피는 대형주 중심으로 위험자산 선호가 약화

반면,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 최근 코스피 대비 아웃퍼폼이 뚜렷

한미 무역협상 후속조치를 담은 '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원전 업종 수혜 기대감으로 급부상. 코스피, 코스닥 모두 관련주 강세

코스피 원전: 대우건설(+17.8%), 한전기술(+6.4%), 현대건설(+5.6%), 두산에너빌리티(+2.9%)

코스닥 원전/전력설비: LS머트리얼즈(+22.1%), 우리기술(+11.6%)

특징업종: 방산, 정유/화학, 게임 등

지정학적 수혜 기대감으로 상승했던 업종들도 차익실현 매물로 하락 전환

방산: 한화시스템(-5.2%), 현대로템(-3.6%), LIG넥스원(-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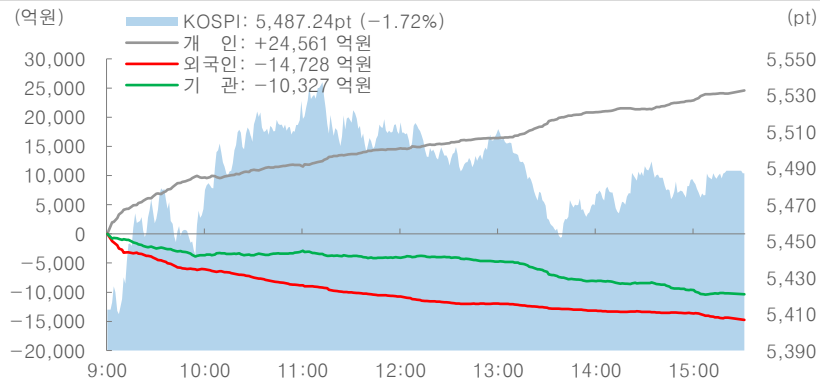
정유/화학: SK이노베이션(-7.5%), S-Oil(-8.5%), KCC(-4.8%) 등

게임: 그간 소외되었던 업종으로 호재성 이벤트가 더해지며 반등

크래프톤(+8.2%):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피지컬 AI 전략적 동맹 구축 소식을 발표

엔씨소프트(+7.8%): 2030년 매출 5조원을 목표로 제시하며 급등

KOSPI 투자주체별 수급 및 장중흐름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modity

호르무즈발 에너지 대란, 원자재 2 차 상승 유발 요인

Commodity Analyst 최진영
jinyoing.choi@daishin.com

- 불과 2 주 사이 전 세계 공급의 6% 사라진 원유 수출, LNG 는 20% 증발
- 문제는 에너지 가격 상승이 원자재 전반 2 차 상승 유발할 수 있다는 점
- 전력→금속, 비료→곡물→사료→돈육, 가스 리프팅→원유 등 비용↑ 유의

불과 2 주 사이 전 세계 공급의 6% 사라진 원유 수출, LNG 는 20% 증발

호르무즈 해협 통한 원유 수출 차질 규모는 불과 2주 사이 전 세계 공급의 6%를 초과했다. 미국의 출구전략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서 불확실성이 재고조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은 우회 시설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사우디의 동-서 파이프라인은 수송 능력이 500만b/d에 그쳤으나 천연가스용까지 원유 수송용으로 전환하면서 700만 b/d까지 확장됐다. UAE, 이라크의 우회 시설을 포함하면 1,030만b/d, 정상 수출 중인 이란과 항행이 허용된 일부 선박(중국/인도향)까지 가산할 시 전 세계 공급의 13~14%는 안정적 수출이 가능하다. 최악이지만 추가 악재는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천연가스이다. 지난 자료 〈전쟁에 시달리는 카타르, 다시 각광받는 미국산 LNG(3/6)〉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천연가스는 우회 시설이 부재하다. 지난 2일 카타르 에너지는 이 같은 이유로 LNG 생산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전 세계 LNG 수출의 20%(오만 제외)가 전면 중단된 것이다. 지금 공급자 가격인 헨리허브는 비수기(난방 시즌 종료 + 냉방 시즌 미도래)인 탓에 상단이 제한되고 있지만, 현 불가항력 상태가 2개월만 길어져도 2021~2022년과 같은 상승이 재현 가능하다.

문제는 에너지 가격↑이 원자재 시장 전반 2 차 상승 유발할 수 있다는 점

이는 원자재 시장 전반에 2차 상승을 유발할 요인이다. 바로 1)금속으로 이어질 가격 전가이다. 천연가스는 전력원으로 전체에서 22%를 차지한다. 신재생에너지(15%) 설비가 확장되고 있지만 여전히 화석 연료(59%)에 의존적인 것이 현실이다. 그런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할 시 전력을 원료로 삼는 광산/제련 기업들은 비용 압박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공정 과정에서 전력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알루미늄부터 구리, 금, 철광석, 우라늄 등 금속 시장 전반에서 가격 전가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2)농 · 축산물 역시 마찬가지이다. 천연가스는 비료 시장에서 58%를 차지하는 질소계 비료의 원료이다. 그런 질소계 비료를 영양분으로 삼는 것이 곡물(옥수수, 소맥, 원면 등)이며 이 중 옥수수를 원료로 삼는 것이 돼지 사료이다. 즉, 천연가스 가격 상승은 '질소계 비료→옥수수→사료→돈육'이라는 밸류체인 전반을 뒤흔들 사안이다.

특히, 3)에너지 가격의 2차 상승까지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천연가스는 원유 생산의 원료이기도 하다. 생산관 내로 고압 천연가스를 주입하여 원유를 지상으로 끌어올리는 가스 리프팅(또는 유정 압력 유지용 가스 주입비) 작업에도 사용되며 찰리 멍거가 말한대로 오일샌드를 중유로 생산할 때도 필수적이다. 2021년처럼 석유 수요가 파괴되기 전까지 무한 상승 루프가 발생할 수 있다.

결국 이 같은 중대성을 고려해 호르무즈 해협 사태에 대한 추가 모니터링을 권고한다. 당사는 여전히 단기(개전일로부터 4~5주) 내 진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지정학 리스크는 예단이 아닌 대응의 영역으로 장기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기존 단기 시나리오로 바라보되 장기전 촉발할 트리거를 체크하며 접근할 것을 권고한다.

Issue & News

삼성전자 (0059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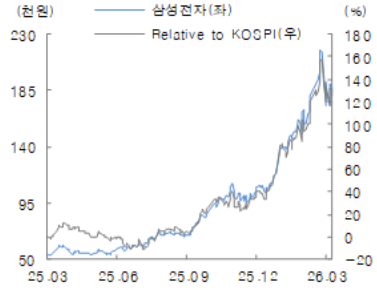
지금이라도 사야 하는 이유

류형근
hyungkeun.ryu@daishin.com
서지원RA
jiwon0.seo@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270,000 유지
현재주가 (26.03.13)	183,500
	반도체업종

KOSPI	5487.24
시가총액	1,195,513십억원
시가총액비중	35.95%
자본금(보통주)	778십억원
52주 최고/최저	218,000원 / 53,0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35,253억원
외국인지분율	49.58%
주요주주	삼성생명보험 외 15 인 19.77% 국민연금공단 7.75%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1.3	68.5	143.4	235.5
상대수익률	1.6	28.0	50.6	57.3



- 2026년 영업이익 전망치를 기존 201조원에서 242조원으로 상향.
- 강한 이익 성장 속, 재무 체력 강화 전망. 초과성장의 동력이 될 것.
- 목표주가 270,000원과 매수의견 유지. 적극적 매수 전략 유효.

1Q26 Preview: 무섭게 올라갑니다

1Q26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131조원 (q-q +39%, y-y +65%), 45조원 (OPM +35%)으로 컨센서스 (최근 1개월: 매출액 118조원, 영업이익 38조원)를 상회할 것. 1개 분기만에 2025년 연간 영업이익 (43.6조원)을 돌파하는 것.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목표주가 270,000원과 매수의견 유지. 적극적 매수 전략은 여전히 유효. 다음과 같은 변화가 주식을 보다 매력적으로 만들 것이라는 판단.

1. 메모리반도체: 초호황과 영업이익 1위 탈환

초호황과 기술 경쟁력의 회복 속, 영업이익 1위 탈환 전망. 고객들은 가격 저항보다 물량 확보를 최우선시하고 있으며, 이에 높은 기저 부담 속에서도 강력한 가격 상승이 지속될 것 (2Q26 ASP 전망: DRAM q-q +29%, 범용 DRAM q-q +30%, NAND q-q +19%). 창사 최대 수익성을 경신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 (2026년 연간 영업이익률: DRAM +76%, NAND +47%).

2. 메모리반도체 외에도 기대할 것은 많다: 주주환원 강화와 약점 보완

메모리반도체 이익 사이클의 장기화 속, 재무 체력은 보다 강화될 것 (현금 및 현금성 자산: 2025년 말 125조원, 2026년 말 229조원, 2027년 말 297조원 전망). 늘어나는 자산은 초과성장을 이끌 강한 원동력이 될 것.

1) 주주환원 강화: 2026년 DPS 9,650원 전망 (특별배당 포함). FCF 창출 역량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중장기 주주환원 강화 또한 기대 가능한 환경.

2) 비메모리반도체: 삼성파운드리 중심의 경쟁력 회복을 기대. 2027년 연간 흑자전환도 기대 가능한 환경. 충분한 투자 재원을 기반으로 한 기술 투자 강화, 지정학적 변화에 대비한 고객들의 선제적 대응 등이 회복을 이끌 것.

3) 세트 사업부문: AI 시대에 맞춤화된 포트폴리오 구축을 위해 새로운 변화를 추진 가능한 환경. 강한 재무 체력이 뒷받침되고 있는 만큼 유의미한 M&A를 추진해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 해당 가능성에도 주목할 필요.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2023A	2024A	2025F	2026F	2027F
매출액	258,935	300,871	333,606	582,908	629,884
영업이익	6,567	32,726	43,601	241,757	251,369
세전순이익	11,006	37,530	49,481	249,527	264,095
총당기순이익	15,487	34,451	45,207	187,145	192,789
지배지분순이익	14,473	33,621	44,261	186,215	191,887
EPS	2,131	4,950	6,564	27,646	28,488
PER	36.8	10.7	18.3	6.8	6.6
BPS	52,002	57,663	62,922	90,046	110,454
PBR	1.5	0.9	2.9	2.0	1.7
ROE	4.1	9.0	10.8	36.1	28.4

주: EPS와 BPS, ROE는 지배지분 기준으로 산출
자료: 삼성전자,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Issue & News

SK하이닉스 (000660)

현저한 저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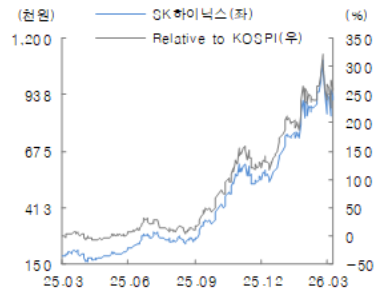
류형근
hyungkeun.ryu@daishin.com
서지원RA
Jiwon.seo0@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1,450,000 유지
현재주가 (26.03.13)	910,000
	반도체업종

- 2026년 영업이익 전망치를 기존 174조원에서 204조원으로 상향.
- 현저한 저평가 구간에 위치. 반등의 매개체는 충분하다는 판단.
- 목표주가와 매수의견 유지. 적극적 매수 접근이 필요한 시점.

KOSPI	5487.24
시가총액	648,559십억원
시가총액비중	19.50%
자본금(보통주)	3,581십억원
52주 최고/최저	1,099,000원 / 164,8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28,483억원
외국인지분율	53.51%
주요주주	에스케이스퀘어 외 7 인 20.50% 국민연금공단 7.50%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3.4	59.4	177.0	355.7
상대수익률	3.8	21.0	71.4	113.7



1Q26 Preview: Earning Surprise

1Q26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52.6조원 (q-q +60%, y-y +198%), 38.0조원 (OPM +72.3%)으로 컨센서스 (최근 1개월: 매출액 47.5조원, 영업이익 32.2조원)를 상회할 것. 강력한 가격 상승 효과 (1Q26 ASP: DRAM q-q +62%, 범용 DRAM q-q +95%, NAND q-q +60%)가 전사 이익 성장을 견인. 4Q25 때와 마찬가지로, 업계 내 가장 강력한 수익성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

투자전략: 현저한 저평가, 적극적 매수 접근 필요

Macro Risk (미국-이란 전쟁) 속, Pure 메모리반도체 기업인 SK하이닉스의 주가는 고점 대비 18% 하락. 12m Fwd P/E는 당사 이익 전망치 기준 4.1배에 불가. 현저한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으며, 다음과 같은 변화가 SK하이닉스 주가의 매력도를 드높일 것. 목표주가 1,450,000원과 매수의견 유지.

1. 다가오는 Micron Technology의 실적 발표, 강화될 초호황의 증거

Micron Technology의 FY2Q26 (2025년 11월-2026년 2월) 실적이 3월 19일 오전에 발표될 예정. 금번 실적발표에서 초호황의 증거가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 더 강한 사업 경쟁력에도, Micron Technology 대비 더 싸게 거래되고 있는 만큼 SK하이닉스 주가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증폭될 것이라 생각.

2. GTC 2026, NAND에서의 초과 성장 기회에 주목

GTC 2026은 NAND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증폭시킬 이벤트가 될 것. Gen 6 Controller 기반 SSD, HBF Prototype/연구 성과 등이 공개될 것으로 전망.

SK하이닉스의 경우, AI 서버용 Storage 신제품 중 하나로 HBF를 준비 중. 연내 개발을 완료하고, 2027년 제품 인증, 2028년 상용화를 목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HBF 뿐 아니라, Solidigm 기반 QLC에서의 강점도 보유하고 있는 만큼 NAND에서의 성장 가치가 주가에 추가 반영될 것이라 생각.

3. 주주환원 강화: 배당 정책 강화 및 ADR 발행 계획 구체화 등을 기대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2023A	2024A	2025F	2026F	2027F
매출액	32,766	66,193	97,147	275,630	311,971
영업이익	-7,730	23,467	47,206	204,009	206,101
세전순이익	-11,658	23,885	50,466	207,924	212,903
총당기순이익	-9,138	19,797	42,948	155,943	157,548
지배지분순이익	-9,112	19,789	42,919	155,938	157,544
EPS	-12,517	27,182	58,955	218,298	221,052
PER	NA	6.4	11.0	4.3	4.2
BPS	73,495	101,515	165,544	384,531	602,903
PBR	1.9	1.7	5.5	2.4	1.5
ROE	-15.6	31.1	44.2	78.9	44.7

주: EPS와 BPS, ROE는 지배지분 기준으로 산출
자료: SK하이닉스,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Issue Comment

자동차/부품

김귀연 gwiyeon.kim@daishin.com

투자의견

Overweight

비중확대, 유지

자동차 커버리지 정기주총 체크 포인트

- 자동차 업종 3월 정기 주주총회 안건 분석: 상법 개정으로 정관변경↑
- 에스엘은 CB/BW 발행한도 확대 안건 상정(기존 한도 500 => 5,000억원)
- 로봇 수주 => 자금 조달/Capex 집행 동반 예상. 수주 모멘텀 지속 주목

자동차 업종 주주총회 슈퍼위크 돌입. 상법개정으로 정관 변경 안건 ↑

SNT모티브(2/27일 주총진행) 제외한 자동차 커버리지 12개사의 주총 시즌 돌입. 9개사가 3/26일에 주총 진행하며, 3/31일 명신산업을 끝으로 커버리지 종목 주총 시즌 마무리될 예정

2025년 상법개정으로 2026.03월 정기주총서 정관변경 안건 급증. 모든 상장사에 대해 이사의 충실의무/독립이사 제도 강화(의무선임↑) 적용.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상장사들은 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선출/3%룰 강화/전자주주총회 도입이 의무화. 이에 따라, 기업별 정관에 1) 집중투표제 의무화(26.09월), 2) 이사 충실의무 명시(의결일), 3) 감사위원 분리선출/대주주 3%룰 강화(26.07월), 4) 전자주총 의무화(27.01월), 5) 독립이사제도 강화(26.07월) 명문화하는 안건 다수 상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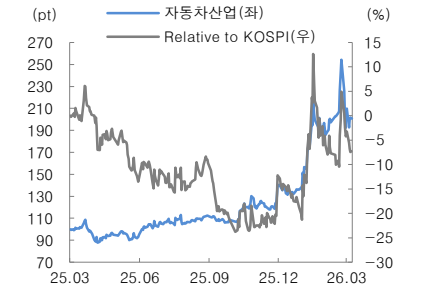
이 외 주목해 볼만한 주총 안건: 에스엘 CB/BW 발행한도 확대

상법개정에 따른 정관변경 외에 사업목적 추가, 배당기준 변경 등 안건 상정. 주목해볼 안건 중 하나는 에스엘의 CB(전환사채)/BW(신주인사권부사채) 발행한도 확대. **에스엘은 회사규모에 맞는 발행한도 현실화 및 자금조달 유연성 확보를 목적으로 정관상 CB/BW 발행한도를 각각 500억 => 5,000억원으로 상향하는 안건 상정**. 에스엘의 이익규모는 2025년 연간 매출 5.2조/OP 4,071억/NP 3,208억원. 3Q25말 재무상태는 부채비율 54%/순현금 5,550억 수준으로 당장 자금조달 필요성은 제한적. 다만, **동사는 로봇 위탁생산/모듈 Assy 사업 확장 노력 중으로 관련 투자 가능성 높음. 이에, 향후 Capex 확대 가능성과 자금 조달의 유연성 높이기 위해 관련 정관 변경 진행했을 개연성 존재**. 동사의 재무여력 감안 시, 자기자본 조달 가능성 필요성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투자 결정과 진행에 있어 자금 변화 지속 업데이트 해야 할 필요

자동차: 전쟁 불확실성 지속되고 있으나, 신사업 방향성은 변화 없음

2/28일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따른 중동 전쟁 우려로 국내 증시 및 자동차 업종 변동성 확대. 2026.03월 MTD 자동차 업종 -17%(vs 코스피 -11%).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업황 부담 확대는 불가피하나(*중동 전쟁 영향 점검과 시나리오별 투자전략, 26/03/09 자료 참고*), 피지컬AI 신사업 방향성은 변화 없음. 현대차그룹은 2029년까지 새만금에 9조원을 투자해 로봇/AI/수소에너지&시티/태양광 사업을 활성화하고, 이중 4,000억은 로봇제조/부품클러스터 구축에 사용될 계획. 이에 따라, **2H26 이후 로봇 관련 양산 수주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 양산 수주와 함께 업체별 자금 조달/Capex 집행 동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관련 수주 모멘텀에 지속 주목해야 할 필요**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0.2	44.4	80.2	101.5
상대수익률	-0.9	7.8	9.6	-7.1



Issue Comment

현대차 (005380)

팰리세이드 리콜 관련 업데이트

- 현대차, 팰리세이드 전동 시트 결함 이슈로 생산 중단/리콜 발표(3/14)
- 기능 개선/안정성 강화 임시 소프트웨어 개발과 3월말 OTA 준비중
- OTA 통해 리콜 마무리된다면, 관련한 펀더멘털 영향 크지 않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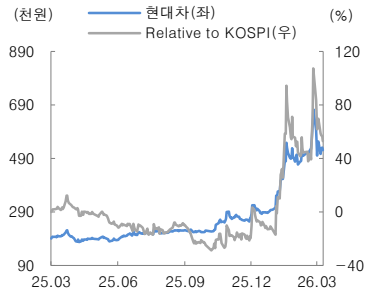
김귀연

gwiyeon.kim@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660,000 유지
현재주가 (26.03.12)	521,000 자동차업종

KOSPI	5,583.25
시가총액	122,884십억원
시가총액비중	3.69%
자본금(보통주)	1,135십억원
52주 최고/최저	674,000원 / 177,5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7,277억원
외국인지분율	29.30%
주요주주	현대모비스 외 9 인 30.67% 국민연금공단 7.31%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3.0	72.8	133.1	162.9
상대수익률	1.8	29.0	41.8	21.2



3/14일 현대차 팰리세이드 생산 중단/자체 리콜 발표

현지시간 3/13일, 현대차 북미법인은 팰리세이드 Limited/Calligraphy 트림 판매 및 생산 중단, 자체 리콜 발표. 이는 3/7일 해당 이슈로 유아 끼임 사망 사고가 발생함에 따른 후속 조치. 기능 결함은 2/3열 시트 전동 접이/원터치 틸트 앤 슬라이드 사용 시, 일부 경우에 탑승자 또는 물체의 접촉을 의도대로 감지하지 못하는 이슈 때문. 현대차는 현재 1) 구매 고객에게 직접 연락 통해 전동 시트 작동 시 주의를 권고하고, 2) 접촉 감지 기능 개선/시스템 안전성 강화 위한 임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개발 중. 3월말까지 OTA 방식의 임시 업데이트 진행 계획

OTA 방식으로 업데이트 진행할 경우, 관련 실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

금번 이슈 차종은 2026년형 팰리세이드 중 북미 Limited/Calligraphy 트림. 해당 차종은 1) 원터치 2열 시트 슬라이딩으로 3열 액세스, 2) 3열 전동 폴딩 시트 옵션을 함께 적용. 한국도 동일한 기준에서 리콜 진행한다면, Calligraphy 트림과 컴포트 플러스 옵션 적용한 Prestige 트림 해당할 것으로 예상. 북미 대상 차종은 68,482대로 발표(미국 60,515대/캐나다 7,967대). 한국은 트림별 생산물량 알 수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상위 트림 선택률 높은 팰리세이드 특성상 2H25 이후 국내 생산물량(37,517대) 중 상당부분 해당될 것으로 예상

금번 이슈로 단기 팰리세이드 생산차질 및 리콜 비용 반영은 불가피. 다만, OTA(무선 업데이트) 방식의 리콜 이루어진다면 실적 영향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OTA 통한 리콜/신규 생산 차종 업데이트 대응한다면, 생산차질 영향 길지 않고 리콜 비용도 고객 요청에 따른 렌터카 비용 정도일 것이기 때문. 26년 핵심 신차 결함 관련한 인명 사고와 리콜 발생한점은 아쉬움. 하지만, 즉각적인 대응 전략과 실제 리콜 규모 감안 시, 펀더멘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2023A	2024A	2025F	2026F	2027F
매출액	162,664	175,231	186,255	194,495	201,787
영업이익	15,127	14,240	11,467	12,845	13,183
세전순이익	17,619	17,781	13,841	17,061	17,463
총당기순이익	12,272	13,230	10,365	13,307	13,621
지배지분순이익	11,962	12,527	9,446	12,642	12,940
EPS	43,589	46,042	35,330	47,635	48,759
PER	4.7	4.6	14.7	10.9	10.7
BPS	337,065	401,009	431,680	472,320	509,737
PBR	0.6	0.5	1.2	1.1	1.0
ROE	13.7	12.4	8.4	10.5	9.9

주: EPS와 BPS, ROE는 지배지분 기준으로 산출
자료: 현대차,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 Compliance Notice

-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 Research Center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위 애널리스트는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 ✓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